

호남권 원자력산업 품질 및 안전교육 시행



이번 호남권 원자력 품질 및 안전교육에는 34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다.

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6월 23일 조선대학교에서 ‘호남권 원자력 품질 및 안전교육’ 집합교육을 시행하였다.

호남권 품질 및 안전분야 종사자 및 대학생 34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COVID-19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며, 특히 집합교육 시행 시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하여 ‘사회적 거리두기’를 준수하여 교육생 좌석 간 2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엄수하였다.

이번 집합교육은 ‘원자력 품질용어 및 CFSI(김행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부장)’, ‘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 실습(송두고 수산이앤에스 이사)’, ‘한수원 품질보증 프로그램(배영배 한국수력원자력 차장)’, ‘품질보증감사 실습(조성웅 한국수력원자력 차장)’등의 품질보증 기본개념 과정보다 실습과정까지 총 14시간의 강의로 진행되었다.

한편 집합교육 전 온라인교육원을 활용하여 원전 경고신호, 일반규격품 품질검증, 원자력품질보증과 품질문제 사례, 원자력 품질보증 감사, 원전 품질보증시스템 및 품질경영시스템, 방사성폐기물관리 품질보증체계, 기술기준 및 표준 등 일곱 개 과목에 대하여 15일간 온라인교육이 이루어졌다.

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‘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’ 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산업 품질 및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간 4회에 걸쳐 권역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. **KIIF**